

오늘날 남한에서 사용되는 '레디컬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에 관하여

〇 〇

상당히 뒷북이지만 오늘 넘글에 올라운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페미니즘에 관한 내용들을 보고 사족처럼 몇몇 얘기를 슬며시 첨가하고자 하는 욕망에 글을 써봄.

글을 들어가기에 앞서 이 글을 쓰는 주체인 나 자신은 그냥 많고 많은 사회학 학부생이고-따라서 지식의 양과 사고의 깊이 양 면에서 부족하고- 본 글을 쓰기에 앞서 읽어본 페미니즘 서적도 제2의 성, 성의 변증법, 성정치학, 백래쉬,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정도가 전부이고 그 외에 인터넷과 논문에서 본 흑인페미니즘운동의 저작들 뿐임을 밝히고자 함.

성의 변증법과 성정치학이라는 두 레디컬 페미니즘의 저작의 내용은 두 저작이 나올 당시의 미국사회와 분리되어서 이야기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시 미국사회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해보자면, 두 저작이 출판되었던 1960년 말~70년 초라는 시대 배경은 그 이전의 40년대, 50년대의 기억 위에 존재했음. 2차 대전이라는 전시상황은 전쟁터로 징집된 남성노동력의 자리를 대신할 노동력을 긴급하게 필요로 했고 국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가정주부'였던 여성들을 생산현장으로 불러들이고자 했음. 한 번 쯤 어딘가에서 보았던 머리엔 천을 두르고 소매를 걷어 올린 팔뚝을 전면에 내세운 We can do it 포스터 같은 것들이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함. 이러한 상황들은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코미디라고 생각되는데 이전까지 여성을 '가정주부'로 이상화하고-혹은 만족스러운 섹스를 제공하는 순진한 창부로-그 근거로 여성의 신비를 여성의 몸 안에서 다시말해 자연적이고 변화 불가능한 요소로 제시하던 사회가 전쟁이라는 상황 앞에 자신들의 자신만만한 선전들이 거짓이었음을 자백했기 때문임. 비록 여성들의 공식적인 경제영역 참여가 국가와 자본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한계에도 불과하고 이 때의 경험과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들이었음.

40년 중반 전쟁이 끝난 이후 국가와 자본은 여성들이 이전처럼 순진하고 착한 가정주부로 돌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리라 기대했음.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명령이 여성들의 거센 저항과 반발에 점차 그 힘을 잃는것을 마주했을 때 그들은 일종의 당혹감을 느꼈음. 직면한 거부반응을 중화시키기 위해 그들은 일종의 신화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오늘날 '레트로' 따위를 내세우는 미국배경의 상품 속에서 나오는 단란한 중산층 가족이미지가 그것이었음.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가족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자의 경우는 (가부장적)가족주의가 사회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 작용하게끔 만든다는 점과 가족주의 안의 가부장제에서 여성을 남성의 시각으로 창조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써 여성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촉발시켰다는 면에서 또 후자는 전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미국의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소비의 주체로써 "소비로 국가에 헌신하는" 여성을 만들어냄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가치가 있음.

위와 같은 사건들과 연결지어진 60년대 미국의 여성들이 마주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음. 오랜 역사를 지닌 자유주의적 여성운동의 가시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소위 공적 영역에서의 노골적인 여성차별-임금격차와 고용률-과 사적 영역에서 매 순간 마주해야하는 밀착되어있고 모든 삶의 영역을 가득 채운 모욕적인 차별이 그것이었음.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던 미국 여성들은 동시에 여성의 신비에 기반하고 있는 (남성에 의해) 만들어진 여성을 강요당해야만 했음. 이것은 당시 미국의 사회주의계열 진영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이런 점들은 성의 변증법의 저자인 술라미스 파이어스톤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남.

따라서 레디컬 페미니즘의 고전인 성의 변증법과 성정치학은 비록 그 두 저작간의 무시하기 어려운 내용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당시 미국사회의 복잡한 결과물이라는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음. 이러한 점은 성의 변증법과 성정치학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함.

우선 성의 변증법은 제목에서부터-동의하던 않던-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과 변증법을 차용했음(혹은 그렇게 주장). 물론 파이어스톤은 단순히 마르크스의 방법론을 차용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것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대한 페미니즘적 재해석을 사용하여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갔음. 이 과정 정확히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페미니즘적 재해석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성의 변증법의 고유성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정신분석학의 재해석의 과정과 그 결과로써 이제 인간의 성심리가 즉 가부장제가 문제의 근본에 위치하게 되었기 때문임. 여기까지만 본다면 많은 갤러들이 즉각 비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것이 타당한 비판일 것이라고 생각함.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약간의 인내심을 발휘해 주기를 바람. 왜냐하면 파이어스톤이 책의 도입부에서 사용한 '혁명보다 더 총체적인 단어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말이 무색하지않게 책의 후반부는 정말로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고 여기기 때문임. "여성과 아이"의 공동체적인 성격에 대한 분석이나 만들어진 인간의 생애주기로써 "청소년기" 그리고 "아동기"에 대한 전복적인 주장들 그리고 당시 사회변화시도로 시행되었던 서로 다른 성격의 운동에 대한 분석들-키부츠와 사회 속의 안식처로써 진보적인 교육단체-은 진지하게 생각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하는것이 다소 권위적이고 오만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타당한 문제제기라고 개인적으로 여기기 때문임.

여기까지 본다면 한 번쯤 해보아야할 생각이 하나 떠오른다고 여기는데 'Radical Feminism'의 번역어인 '급진 페미니즘'과 영어를 음차한 '레디컬 페미니즘'이 그것임. 개인적으로는 남한이라는 공간에서 공유되는 어떠한 관념 다시말해 그것이 어떠한 문제이건 양극단은 문제의 성격과 그 주장의 내용과 무관하게 그것이 '극단'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일종의 가치판단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보수주의적 면모를 고요히 "중도의 함리"로 감추어놓은 지배적 담론을 감안한다면 번역자의 선한의도와 무관하게 문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또 다른 문제는 Radical Feminism의 문제의식(갤러들이 동의하던 그러지 않던) 근대화의 약속에도 사라지지 않는 뿌리깊은 가부장제 그 '설명하기 까다로운 문제'와 같은 면들이 그 단어 안에서 감추어지고 왜곡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이 지점은 어쩌면 문제의식과 해결법이 도치되었다는 문제제기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오늘날 남한에서 즐겨 사용되는 소위 '레디컬 페미니즘' 비판들을 만들어내는데 상당부분 영향이 있다고 봄. 개인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와 주변 인간관계에서 이야기되는 '페미니즘 비판'을 살펴본 결과를 분류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분류 가능할 것 같음.

1. 소위 보리수식 페미니즘 비판

이러한 비판은 가장 많이 보이기도 하고 또 비판하기도 어려운 유형인데,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페미니즘'은 현실 속의 이론 혹은 실천으로써 페미니즘이 아니라 보리수 개인의 취향과 이득에 반하는 것들의 총체이기 때문임.

2. '레디컬 페미니즘이 문제다!' 식 비판

이 분류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유형은 레디컬 페미니즘에 대한 진지한 비판이라기 보다는, 남한 사회에서 강한 상징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성적" 이고 "논리적" 인 합리성의 소유자라는 이미지를 획득하고 싶은 욕망을 이루기 위해 페미니즘에 대해 간략한 정보만을 접한 뒤 서로 다른 이론배경을 가지고 있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자유주의 페미니즘, 상호교차성 페미니즘, 퀴어이론 (사실 이진 드뭄) 등등을 '레디컬 페미니즘' 과 물리적으로 분리시킨 뒤에 (페미니즘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비이성적' 으로 보이기 쉽상이기에) 그 모든 서로 다른 비판점을 한 군데에 몰아넣은 일종의 '악마로써 레디컬 페미니즘'을 창조하여 이것을 비판하는 유형.

3. 오늘 녀글에서 염두에 둔 페미니즘과 선을 긋기 위한 도구로써 '여성해방론' 을 주위섬기는 유형

이 부분은 녀글과 그에 달린 댓글들을 봤을 때 많은 갤러들이 생활에서도 많이 접했으리라 생각해서 게으르게도 설명을 따로 하진 않겠음.

이 글에서 얘기하고 싶은것은 2번 유형임.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최근 경향은 2번 유형이 점차 증가하는것 같음. 그 이유는 다양할 것 같지만 이 글에서는 하나만을 꼽아보고자 함. 바로 성신여대 트랜스학생 입학거부 같은 너무나 '안전'하게 비판가능한 사건이 한국사회에서 있었던 사실이 그것임. 실제로 많은 2번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성신여대 사건을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이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자신들의 비판을 '진보적' 으로 위장함. 왜 위장이라고 표현했나하면 많은 2번 유형의 사람들이 성신여대 사건을 가져와서 '레디컬 페미니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한 뒤에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 비판의 논리적 귀결이 더욱 급진적이거나 진보적을 향하도록 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수적인 결론 혹은 레디컬 페미니즘과 전체 페미니즘의 단일화로 향하거나 혹은 둘 다를 취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임. 어쩌면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진정겜이나 심지어 로겜에서도 페미니즘과 관련한 글들이 결국에는 말초신경적 감정배출 혹은 백래쉬의 등장으로 이어지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원인들 중의 하나로 작용하지 않나 싶음.

다 쓰고 나니 분량이 별로 되지도 않는 글인데 너무 못써서 좀 부끄럽네. 또 많이 부족한 사람이 쓴거라 많은 지점에서 빈약하기도 할 거고 많은 갤러들의 비판이 필요한 이런 글을 배설하고 나니깐 참 그렇다. 암튼 봐줘서 고마워요!